

# 한복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

— 여성복을 중심으로 —

부산여자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홍 나 영

目	次
I. 서론	III. 한복개량운동의 성립과 결과분석
II. 한복개량운동의 역사적 고찰	1. 조선시대의 여복개량논의
1. 조선시대의 여복개량에 관한 논의	2. 구한말의 한복개량운동
2. 구한말의 한복개량운동 과정	3. 일제시대의 복장개량운동
3. 일제시대의 복장개량운동 과정	4. 해방후의 한복개량운동
4. 해방후의 한복개량운동 과정	IV. 결론 및 요약

## I. 서론

현대의 생활양식을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바람직한가를 설명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의복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관념과 가치관의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한복개량운동이 있게 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에도 시도되고 있는 개량한복의 지향할 바를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한국복식의 연구 중 개화기 이후의 복식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항 이후의 한복변천과정이나 양장 변천, 혹은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였다. 구한말에서 일제초기에 걸쳐서 한복 개량운동이 성공을 거두어 실용화되었던 것에 비해 해방후의 한복개량운동은 몇 차례의 시도로 끝났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복개량의 논의에 대해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개량한복 운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이 운동이 성공 혹은 실패를 맞게 된 근본요인에 관심을 두어 고찰하였다.

복식변화의 상호요인들의 분석에 대해서 미흡함을 느끼며, 70년대 이후의 개량한복에 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으나, 이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훗날의 연구에 미루고자 한다.

## II. 한복개량운동의 역사적 고찰

### 1. 조선시대의 女服改良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 여자 복식을 개량하자는 주장은 조선초부터 있었던 것 같다.

태종 7년(1407) 왕이 文臣에게 시험을 보일 때에 부녀복식의 개량책을 논하게 하였다.<sup>1)</sup> 同王 9년 3월 司憲府에서 올린 時務策에도 여복제도의 개량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개량의 목적은 첫째, 여자 복식을 中華의 制度에 따르고자 한 것이며, 둘째는 하층

1) 「太宗實錄」, 7年.

부녀의 복식이 상류층의 것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禁制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후 세종 때에도 재차 여성 복식의 개량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세조 때에는 여자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 남녀 옷의 구별이 어려웠기에 이를 '服妖'라고 하고, 옷으로 성별, 계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여자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자 유학자들의 비판이 있게 되고, 정조는 서민 남녀의 겹저고리와 반가부녀의 가체를 금지시켰다.<sup>3)</sup>

이러한 단편적인 논의와는 달리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실생활 전반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복식의 개량을 시도하였다. 宋時烈(1607~1689, 「刑女書」), 李紱(1678~1745, 「四禮便覽」), 宋文欽(1710~1752, 「婦人服飾攷」), 朴趾源(1737~1805) 등의 학자에 의해 이미 여복개량이 주장된 바 있었으나, 朴珪壽(1807~1876)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居家雜服攷」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유교적 예의관에 입각하여 당시의 복식 혼란의 이유<sup>4)</sup>를 밝히고 의복개량을 통해 사치와 유행풍속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즉, 나라의 시책에 맞는 검소한 의생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복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sup>5)</sup>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당시의 풍속을 무시하고 중국의 고대 복식제도에서 원류를 찾으려고 한 것이었다. 이것은 유학자 대부분의 服飾觀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과 유리된 하나의 제안에 그치고 말았다.

## 2. 구한말의 한복개량운동 과정

개항 이후 서구 문명과의 접촉은 봉건적 의식 속에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근대적 자각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의식 변화는 복식에 있어서 관복의 간소화를 가져왔다.<sup>6)</sup> 그러나 자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기도 전에 일본의 압력으로 단발령과 관리들의 양복 착용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여성 복식은 서서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을미조약(1905) 체결 이후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애국계몽이 일어나고 여성의 의식 개혁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졌다. 생활 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이 논의되었다. 복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장옷을 폐지하고<sup>7)</sup> 다음으로 의복을 개량<sup>8)</sup>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비록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대한 여자교육회에서도 중추원에 여자의제 개량을 건의 하였다.<sup>9)</sup>

당시의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제안에는 장옷을 벗는 대신 모자를 착용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의복 개량으로는 양복과 한복을 절충한 안,<sup>10)</sup> 첩리에 기초한 개량복 안,<sup>11)</sup> 염의에 양장의 요소를 가미한 것<sup>12)</sup>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별 성과없이 실행되지 못한 반면, 저고리를 길게 하고 통치마를 입어 활동에 편리하게 하자는 의견은<sup>13)</sup>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다. 당시 신문에서 부인회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남자 저고리와 같이 긴 저고리에 서양식 머리를 하고 쓰개치마 대신 우산을 썼다는

2) 앞글, 9年 3月.

3) 金東旭(1973),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아세아 문화사, p. 315.

4) 박규수는 복식혼란의 이유를 ① 임진왜란·병자호란이후의 사회혼란에 따른 예의규범의 붕괴와 혼란 ② 지도층의 서민복에 관한 관심결여 ③ 부녀의 무지함. ④ 비판정신의 결여라고 밝히었다.

5) 趙孝順(1981), "조선조 후기 여성복식과 개량논의-박규수의 내복편을 중심으로-", 「服飾」, 4호, 한국복식학회, pp. 1-12.

6) 兪水敬(1989),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27.

7) 「帝國新聞」, 1906年 5月 31日, 1906年 3月 1日, 1907年 6月 19日.

8) 「만세보」, 1906년 11월 22일, 23일.

9) 앞글, 1907년 3월 5일.

10) 「帝國新聞」, 1905년 6월 1일, 19일.

11) 앞글, 1905년 6월 1일.

12) 「만세보」, 1906년 11월 22일.

13) 「제국신문」, 1907년 6월 19일.

기록을 볼 수 있다.<sup>14)</sup>

한편 통감부 정치가 시작된 1905년부터는 백의착용 금지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 역시 신문을 통하여 주장되었다.<sup>15)</sup> 표면적으로는 의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대부분 한국인에 의해 제기되었던 것이나 그 이면에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3. 일제시대의 복장개량운동 과정

1900년대말부터 논의가 있었던 한복의 개량이 계속 진행되었다. 장옷은 거의 사라지고, 저고리의 길어도 길어졌으며 치마에도 조끼허리를 달아 입게 되었다.<sup>16)</sup> 이러한 실효를 거두게 된 것은 여학교에서 통치마 저고리를 교복으로 정하고, 부인회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이를 착용했던 것 외에도 여자교육회에서 군소도시 순회계몽강연회를 통해 여성 생활 개선을 고취시키고 언론을 통해 의생활 개선을 주장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통치마 저고리 외에 다른 개량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김원주의 개량복 제안이다. 그는 의복이 갖추어야 할 3대 조건을 위생·예의·자태로 들고 양장의 요소를 많이 도입한 개량안을 제시하였다.<sup>18)</sup> 그러나 당시 나혜석이 「동아일보」에 발표한 의견은 김원주의 개량복에 관한 견해에 비해 1920년대 사회에서의 보다 보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나혜석은 김원주의 안을 한복의 본질적 특징이 사라질 정도로 양장의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어깨 허리를 단 통치마 저고리를 위생과 예의와 미 그리고 활동성을 겸비한 이상적인 의복으로 평가하였다.<sup>19)</sup>

이후 조선의장미술 연구소에서도 양복소매를

난 개량복을 고안했으나, 이 역시 하나의 제안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서 통치마 저고리의 개량 한복은 여성교육인구의 증가와 여성사회참여의 증가로 인해 양장과 함께 꾸준히 그 착용 인구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1937년부터 일제의 군국주의가 강화되자 의복도 전시체제에 맞게 획일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군수물자 보급을 위한 경제적 절약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에게 획일화된 의복을 입게 함으로써 심리적 일체감을 갖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다. 우선 물자절약의 차원에서 공무원, 일반인, 학생의 표준복을 군복 모양에 가깝게 제정하였다. 한복도 옷감 절약을 위해 저고리의 길이를 짧게 하고 통치마를 입게 하였으며, 옷고름을 없애고 단추를 달게 하였다.<sup>20)</sup>

이어서 1940년에 국민복이 제정되고, 1942년에는 후생성 산하의 부인 표준복 연구회에서 1년간의 연구를 거친 후 기능성을 강조한 甲, 乙 2가지 형의 부인 표준복을 정하였다. 이 옷은 한복과 그 모습이 비슷하였다고 한다.<sup>21)</sup> 그러나 보수성이 강한 부인들은 한복의 비활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한복과 양장의 절충안에 큰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

의복형태에 대한 개량과 함께 色服에 대한 장려운동도 구한말에 이어 계속되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백의에 대한 장단점을 지적하고<sup>22)</sup> 캠페인과 강습을 통해 色衣를 입을 것이 강조되었다. 즉 위생상으로는 백의가 좋지만 세탁에 여성의 많은 노동을 요구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남는 시간에 여성 스스로를 개발할 것을 권하였다.<sup>23)</sup> 이러한 안은 여성 해방론적 측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주장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백의착용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노력

14) 앞글.

15) 「황성신문」, 1905년 10월 21일, 1906년 11월 27일, 1908년 2월 14일, 1912년 3월 7일.

16) 「만세보」, 1906년 10월 27일, 1907년 4월 25일.

17) 노천명(1956), 「梨花七十年史」, 서울: 이대출판부. p.406.

18) 「동아일보」, 1921년 9월10일~14일.

19) 「동아일보」, 1921년 8월 27일.

20) 「매일신보」, 1938년 3월 8일, 7월 10일, 1939년 1월 24일, 1943년 8월 19일, 23일, 1944년 8월 16일.

21) 앞글, 1942년 6월 13일.

22) 「조선일보」, 1933년 8월 23일, 10월 2일, 1934년 4월 3일 “백의 예찬”

23) 「조선일보」, 1925년 10월 30일.

에 대한 탄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민간중심의 개량 논의와는 별도로 官에서 일선행정기관을 통해 색복장려운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강습회를 후원했을 뿐 아니라 소학교 교과서에까지 색복 입을 것을 일대시정강목으로 강요하는 내용을 넣은 것<sup>24)</sup>이라든지, 백의를 입은 사람에게 검은 물총을 뿌리는 등 강압적 수단까지 사용한 사실로도 증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려책도 저렴한 양질의 염료공급과 발달이 선행되지 못하고<sup>25)</sup> 일본의 정책에 대한 반발심리와 백의선호의 전통이 당시까지 남아있어 일반에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 4. 해방후의 한복개량운동 과정

해방후 우리의 衣文化는 일제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궁핍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다. 해방이란 시대 상황은 전통양식의 회귀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겠으나, 연합군의 승리로 인한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심, 해외동포의 귀국, 미군정과 미군진주 등으로 오히려 양장의 착용 인구가 증가하였다.<sup>26)</sup>

더구나 구호품, 밀수품 등을 통해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산 의복의 홍수 속에서 복식문화가 정립되지 못한 채 한복과 일제 군복, 게다 그리고 양장이 혼용되고 일부에서는 사치스런 수입 의복이 애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자 1949년에 한복 개량 문제가 해방후 처음으로 제기되었다.<sup>27)</sup>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6·25동란으로 한복 개량은 물론이고 복식문화의 기본마저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1951년 11월에는 전시생활 개선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1955년 1월 현재까지도 시행 세칙이 통과되

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못하였으나 그 내용으로 해방후 여성 의생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sup>28)</sup> 즉 이 법령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던 여성들의 외래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 제정되었던 것이다.

6·25의 전화가 복구됨에 따라 생활은 점차 정상궤도로 접어들었다. 섬유공업의 복구가 시작되고 밀수품을 추방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여성잡지가 창간되고 일간신문의 여성란이 정비되었다. 이어서 국민생활 간소화 운동이 1954년 10월에 전개되었다. 1955년 국민생활 검소화 운동, 1956년에는 신생활 운동이 재차 시도되었다. 이 운동의 내용은 여성복의 경우 통치마 착용, 옷고름 폐지 등으로 옷감을 절약하고 활동적인 의복을 장려하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고름을 짧게 달라 리본 모양으로 매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없애고 단추나 브로우치로 대신했다.<sup>29)</sup> 그후 소매도 짧게 하자는 의견이 나와 여름에는 팔꿈치까지 소매를 자르고 치마는 짧은 통치마를 입었다. 그러나 반소매 저고리와 통치마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에게만 착용되었던 것에 비해 고름의 개량은 폭 넓은 지지를 얻어 1969년경에는 고름이 거의 사라지고 매듭 단추나 금, 은, 비취 등의 보석으로 브로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sup>30)</sup>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계속되었던 단추 달기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복의 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질감이 덜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60년 12월 한국 디자이너 협회 주최로 개최된 신생활 디자인쇼에서는 실용적인 면에 치중한 개량한복과 양장이 발표되었는데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고 깃과 길이를 변형시킨 개량 두루마기 등이 있었다.<sup>31)</sup> 아리랑 드레스도 당시에 선을 보였다.

24) 「조선일보」, 1938년 8월 21일.

25) 남윤숙(1990), 「한국 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p. 23.

26) 이경자(1983), 「한국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p. 331.

27) 유희경(1961), “한복개량의 방향”, 「여원」, 1961년 11월, p. 288.

28) 남윤숙(1990), p. 156.

29) 「여원」, 1961년 11월, p. 288.

30) 앞 글.

31) “신생활디자인 쇼” 「여원」, 1961년 2월, 화보

특히 5·16 혁명 직후에도 신생활 운동이 계속되어 신생활복이 등장하였는데<sup>32)</sup> 이것은 50년대 중반의 국민생활점소화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해 국민운동 서울지부와 한국 디자인 협회, 한국 배우 협회 공동 주최로 여성 신생활복 행진이 있었다.<sup>33)</sup> 이때 제안된 개량한복은 해방 이전에 논의된 개량한복에 비해 대담하게 양복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었다. 즉, 세폭 치마를 두폭반 치마로 하고 나머지 반폭으로 어깨허리를 만들어 달아서 원피스로 만들었으며, 저고리는 필요에 따라 가볍게 걸치는 블레로식이 나왔다.<sup>34)</sup> 그후 짧은 소매에 커프스나 바이어스를 대고, 가슴선을 살리자 하여 다아트를 넣는 등 양장과 다름없이 변형되었다. 또 한복의 고유미를 살리기 위해 깃 모양을 달고 동정 모양의 흰 바이어스를 깃에 달거나, 진동 모양을 살리자 하여 겨드랑이에 바대를 댄 저고리 등이 있었다.<sup>35)</sup>

이것은 생활 안정에 따라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통 양식의 재평가와 한복을 일상 실용복으로 정착시키자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sup>36)</sup>

한편, 한복을 예복으로 착용하려는 인식은 1950년대말경 일상복으로서의 한복개량운동이 시작된 것과 비슷한 시기부터 싹트었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한복은 비기능적이며 활동에 부적합하므로 활동복으로는 양복이나 개량된 한복을 착용하고, 반면 한복의 단점을 개량하고 장점은 살려 명절이나 모임 등에 착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상복으로서 한복의 착용도가 줄어들고, 개량복에 대한 반응도 큰 효과가 없자, 1965년도 이후에 발표된 한복은 긴 치마·저고리로서 옷감이나 색채 문양 등이 이전에 비해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의 예복이 많았다.

### Ⅲ. 한복개량운동의 성립과 결과 분석

#### 1. 조선시대의 여복개량논의

조선시대에 여복개량에 관한 논의가 있게 된 배경을 보면 유교사상을 들 수 있다. 유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禮를 중시하였다. 복식은 예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고 돕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禮的 服飾의 형식과 제도의 성립은 인간과 우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인간의 심리적 기복의 조정과 사회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조직 내에서 신분과 지위, 계급과 품계의 표시수단으로 통치자에게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복식은 착용자의 연령, 성별, 관례와 혼인 여부, 부모의 생존 여부, 사회적 경제적 신분과 지위를 드러낸다.<sup>38)</sup>

그러므로 조선조 초기와 중기의 복식개량논의는 첫째 성별, 신분 복식의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사치금제의 성격을 띤 것으로 호화로워지는 여성복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복개량이 논의되었다. 세번째로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실학자들은 실생활에의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 복식의 지나친 번거로움과 사치, 비기능성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당시 유학자들이 여성복식의 이상을 고대 중국 복식 제도에 두고, 중국 고대 부녀복식에서 개량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행과 풍속을 무시한 개량안은 현실과 유리된 하나의 논의의 차원을 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후 한복개량운동이 발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32) 「조선일보」, 1960년 7월 19일, “신생활운동과 여성들의 각오”, 「여원」, 1961년 7월.

33) “거리에 나선 신생활복”, 「여원」, 1961년 8월, 화보.

34) 유생수, “시원한 개량 한복”, 「여원」, 1961년 8월, pp. 286~295.

35) 「여원」, 1961년 11월, p. 288.

36) 이경자(1983), p. 334.

37) 남윤숙(1990), p. 162.

38) 「여원」, 1958년 6월, p. 114.

39) 김진구(1990), “禮記의 服飾文化(I)”, 「服飾」, 제14호, 한국복식학회, pp. 75~85.

## 2. 구한말의 한복개량운동

구한말의 한복개량이 시작된 직접적 계기는 개항에 따른 서구문물과의 접촉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조선후기에도 淸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있었으나, 한말에는 보다 직접적인 자극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 있는 선교사나 해외여행등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 옷과는 전혀 다른 양복을 접한 당시 사람들은 양복을 우리 옷과 비교함으로써 양복에 대한 선망과 함께 한복의 불편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위기의식을 느낌에 따라 우리의 문화를 개선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을 것이다. 이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서양복의 장점을 취하여 한복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 서양복의 요소를 도입한 오늘날의 旗袍를 입게 되었으며, 일본은 明治18年(1885) 경제잡지에 부인들의 結髮改良束髮會의 활동을 다룬 것을 계기로 생활개선운동과 의복개량안이 나오게 되었다.<sup>40)</sup> 중국과 일본의 개량복의 시도는 인접한 우리나라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른지도 모른다.

서구문화의 접촉을 통해 싹트게 된 근대의식 또한 한복개량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남녀평등사상으로 여성관이 변화되고,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케 하여야 한다는 의식있는 개화파 인사들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속속 발표되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 과학적 사고와 생활개선을 통해 여성들을 가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생활의 합리화 방안으로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활동적인 의복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여러가지 개량복의 제안 중에서도 긴 저고리와 짧은 통치마가 일부 선각자적인 여성과 여학생들 사이에서 입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개량한복이 보편화되지 못한것은 신교육을 받은 여성인구가 극소수인 상태에서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은 한복개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일

것이다. 즉 민중들로부터의 자발적 개선요구가 아닌 상류층 인사, 특히 남성들에 의해 제기된 운동이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또한 양복의 재단 재봉의 기술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양복의 요소를 많이 가미한 의상은 제작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며, 외세열강의 침략 위기 속에서 고취된 민족의식이 한복에 대한 보다 강한 애착심을 갖게 했다고 본다. 따라서 한복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용이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통치마 저고리로 나타났다.

한편 색복의 장려도 역시 염색원료 공급, 기술상의 문제와 민족의식, 서민복과 여성복이 갖는 보수성 등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3. 일제시대의 복장개량운동

구한말 신문 등을 통한 한복개량운동은 일제시대에 들어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 개량한복의 착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 배경으로 우선 개량한복의 착용자인 신여성 즉, 신교육을 받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층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농촌계몽과 강습회를 통해 개량복을 보급시켰다. 즉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졌고, 여학생이나 직장여성들은 어깨허리를 단 짧은 통치마를 입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가정부인들은 재래식 치마를 입었다. 그것은 여성복 자체의 보수적 성격도 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한옥주택 구조에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sup>41)</sup> 가정에서 생활복으로서 불편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던 탓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개량한복, 가정에서는 재래식 한복이라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 후반기가 되면서 개량한복의 착용은 줄어들게 되었다. 일제는 국민복을 제정하고 여학교의 교복도 한복에서 몸빼식의 교복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백의 착용에 대한 규제와 웃고름 등도 더욱 심하게 규제하였다. 이것은 모두 전쟁

40) 遠藤武(1969), 「近代服飾史」, 東京: 雄山閣, pp. 12-13.

41) 김미리사는 개량복을 입지 않는 이유로서 주택구조, 주거공간과 이에 따른 앉음새를 문제로 제기하였다. 김미리사 “경제와 시간문제”, 「신여성」, 제2권 10호, 1924년 11월.

수행을 위한 물자절약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일제시대의 한복개량운동은 구한말의 개량운동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1920년대까지가 그 기간이었다. 1930년대부터는 일제의 본격적 식민지정책 강화로 자발적인 한복개량은 없었다고 볼 것이다.

#### 4. 해방후의 한복개량운동

해방후 한복개량운동은 1949년에 처음 시도되어 6·25동란을 치른 후인 1954년부터 1961년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해방후 한복개량은 국민생활의 검소화란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 구한말의 한복개량운동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소화 차원의 한복 개량운동의 배경에는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 6·25동란 그리고 미군주둔으로 인한 무분별한 서양풍의 유입과 취약한 산업구조에서 비롯된 밀수품의 범람속에서 사치를 몰아내고 의식주의 수준을 향상하며<sup>42)</sup> 우리의 것을 확립하고자 하는<sup>43)</sup> 자구책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은 일제시대에 비해 양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물론 가치관과 미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성교육인구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육체미에 대한 관념도 달라졌다. 신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층들은 단조롭고 몸을 은폐하는 한복보다는 다양한 스타일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양장을 선호하게 되었다.<sup>44)</sup> 여기에는 각종 신문, 잡지 그리고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외국 영화의 주인공이 입은 의상은 곧 유행스타

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양장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교과에 넣어 있었던 양재법과 양재학원을 통해 양장을 제작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양장의 수요에 맞춰 양장점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복개량도 양장의 요소가 많이 가미된 스타일, 반소매 적삼이나 바이어스 재단의 저고리, 혹은 더 나아가 양장에 한복의 요소인 깃, 동정, 둥근 곡선 등을 부분적으로 응용한 디자인이 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부터 입어왔던 통치마 저고리의 개량한복이 중년층에서 계속 착용되었던 것 외에 새로운 디자인들은 한 두번의 시도에 그치고 실용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개량한복이 다소 활동적일지는 몰라도 한국적 미가 상실되고 어색하다는 의견<sup>45)</sup>이 지배적이었으며, 고전미를 손상시켜<sup>46)</sup> 눈에 거슬린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한복은 이미 많은 개량을 거친 것으로 더 이상 개량할 것이 없다거나<sup>47)</sup> 한민족 유일의 전통을 지닌 한복의 특징을 양복에 흡사하게 모방한다는 것에 불만<sup>48)</sup>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한복운동은 별 효과가 없이 끝나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생활복으로는 양장, 한복은 의례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복은 더욱 장식화, 예복화되었으며, 한복을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금박, 자수 등과 함께 플레어 스타일의 치마<sup>49)</sup>등이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해방후의 한복개량운동은 서양복의 유행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복은 전통적 양식을 간직한 채 예복으로 남게 되는 계기

42) 천관우, "우리 의식주의 모순", 「여원」, 1956년 10월, pp. 35-40.

백희득, "의생활 재검토", 「여원」, 1961년 8월, p. 204.

43) "부쩍늘은 양장, 시급한 우리옷의 개량필요", 「조선일보」, 1959년 1월 11일.

44) 디자이너 이병복은 한복의 단점으로 동적미가 없고 자세가 자유로와 몸의 균형이 깨지고 흉부의 미가 파괴된다고 하였다. 이병복, "여성의 육체미, 의복은 미도 추도 감싼다", 「여원」, 1956년 10월, pp. 206~209.

45) 「여원」, 1961년 11월, p. 291, 김재광 의견.

46) 앞글, 서수연 의견.

47) 앞글, 강득순 의견.

48) 앞글, 장정옥 의견.

49) 유희경, "한복과 액서사리", 「여원」, 1962년 12월, p. 386~87.

를 낳게 되었다.

#### IV. 결론 및 요약

한복개량운동은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크게 나누어 세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처음은 조선시대의 유학자에 의한 것으로 중국의 제도에 이상을 두고 여성복식을 개량하고자 한 것이었다. 두번째는 개항 이후 일제시대 초기까지의 한복개량운동으로 여러 가지의 제안이 있었지만, 통치마 저고리로 정착되어 해방후까지 지속적으로 착용되었다. 일제말의 복장개량은 한복착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복개량운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번째 시도는 해방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의 한복개량운동이었다. 1차 시도가 유교관에 입각한 풍속개량과 검소한 의생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2차 시도는 한복의 신체억압과 비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3차 시도는 검소한 의생활의 진작과 한복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세차례의 시도는 모두 생활복으로서의 한복의

개선에 목적을 둔 것으로 1차 시도는 당시의 국내 풍속을 무시하고 중화의 제도에만 맞추려고 한 결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차 시도는 한복의 비기능적 요소인 치마길이와 저고리 길이, 고름 등에만 변화를 줌으로써 별다른 거부감없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해방후의 한복개량운동은 이미 생활복으로서 양장이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복과 양복을 절충한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절충형은 한국복식의 고유미를 상실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외면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복으로는 양장을, 의례복으로는 한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복은 예복에 맞도록 더욱 장식화되고 화려해지게 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사실에서 복식은 그 사회와 문화의 반영으로, 해방후 우리사회가 이미 서구식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중에 전통양식으로의 회귀라는 시도가 쉽지 않았음을 본다. 다만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의문화를 잊지 않고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의 복식문화의 발전에 또 다른 밑거름이 되어, 1980년대에 한복개량이 재시도 되는 바탕을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